

낭만에 물드는 시간 문화가 있는 고양

낭만과 음악, 멋진 무대와 관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소중한 추억 한 페이지를 장식할 11월의 문화 소식을 전한다.



고양문화재단
The Goyang Cultural Foundation
홈페이지 www.artgy.or.kr
문의 ☎ 1577-7766



1 연극 <산책하는 침략자>

지구정복을 위해 온 외계인들은 인간의 몸에 영혼처럼 침투하여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수집한다. 한 번 빼앗긴 개념은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지 않다. 소중한 개념을 상실해 괴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삶을 짓누르던 개념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쁜 사람도 있다. <산책하는 침략자>는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조차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일시 11. 11.(금) ~ 13.(일)
금 19:30 / 토 14:00, 18:00 / 일 15: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마두동)
티켓 전석 35,000원

2 2022 아람누리 오페라 콘서트 시리즈 VII - <고독한 사랑>

1853년 3월 6일 베네치아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춘희 : 동백 아가씨>라는 제목으로 공연되었다. 원작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의 소설 <동백꽃을 단 아가씨>를 극으로 고쳐 상연했었고 파리에 머물던 베르디가 이 극을 보고 감명을 받아 오페라를 만들었다.

일시 11. 29.(토) 16: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마두동)
티켓 1층석 40,000원 / 2층석 30,000원

3 2022 아침음악나들이 4 <플라워>

90년대 록발라드 그룹의 대표주자인 플라워는 'Endless'를 비롯해 '눈물', 'For you'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지금까지도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전성기 때와 똑같은 보컬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메인 보컬 고유진을 비롯해 베이스 김우디, 기타 고성진이 다시 뭉친 완전체 플라워의 무대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일시 11. 24.(목) 11:00
장소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성사동)
티켓 전석 25,000원

4 손민수 리사이틀

당대 유럽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인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의 음악은 고도의 집중력과 화려한 기교가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최상의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연주자의 무리익은 역량이 필요하다. 진지하고 사색적이며, 동시에 투명한 위로의 감정을 담담하게 건반으로 써내려온 손민수이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무대다.

일시 11. 26.(토) 16: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마두동)
티켓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합창석 20,000원

5 베로니의 두 신사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연극 <베로니의 두 신사>는 신사가 되고자 하는 두 청년의 사랑과 우정이 서로 얽히고 섞여 배신과 음모로, 다시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는 코미디다. 공연은 여성국극에서 영감을 받아 '극단 여행자'의 여배우 10인이 이끌어 나간다. 극 중 배경은 베로니와 밀라노로 그대로 두고서 실제 무대, 의상 미술 분야의 설정은 여성국극이 활발했던 1950년대 전후를 참고로 발전시켰다.

일시 12. 2.(금) ~ 4.(일)
금 19:30 / 토 16:00 / 일 16:00
장소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성사동)
티켓 1층석 40,000원 / 2층석 30,000원

공연, 전시부터
문화예술교육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을
응원합니다.